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발행(2020. 8. 31)  
제2020-8월호(통권 56호)

#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 ISSUE PAPER

### 코로나19와 독일스포츠: 축구를 통해 보는 프로스포츠 및 생활체육에 대한 영향

강진호(Indiana University)

박주호(Indiana University)

- I 여는 글
- II 프로축구의 변화
- III 스포츠클럽에 대한 영향
- IV 시사점
- V 참고문헌

## 요 약

코로나19의 도래와 범세계적인 확산은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열강들을 중심으로 공조와 협력을 강조했던 가치체계는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무기력해졌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흡했던 초기대응과 국가간 정보 공유는 탈세계화를 더욱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 역시 그 끝을 알 수 없는 경기위축과 고용시장의 악화에 신음하고 있다.

스포츠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내 프로리그 중 농구와 배구는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고 축구와 야구는 개막이 연기되었으며 무관중과 경기 수 감소 등의 방역조치에 기반한 제한적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스포츠와 더불어 생활체육 역시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고 있고 이는 스포츠산업의 소비감소와 시장과 공공 모든 영역에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범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독일의 축구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독일 축구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프로축구와 스포츠클럽이란 주체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체육활동의 철학적 가치과 이를 지지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번 위기에 대응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본다. 모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국내의 프로축구, 엘리트스포츠의 존속으로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체가 선택적인 학교로 제한된 육성체계, 그리고 참여의 형태가 소비로 제한된 스포츠클럽에게 독일축구의 대응방안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 존재한다. 코로나19가 야기한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계획하는데 있어 독일의 사례를 통해 참여라는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 I. 여는 글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독일사회가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계기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반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적극적인 산업화를 통하여 라인 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1950년대부터 스포츠는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증진이라는 일차적인 목표와 더불어 민주적 가치구현이라는 목표의 다른 한축을 제시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서의 성장을 꾀했다. 1961년 골든 플랜(Goldener Plan für Gesundheit, Spiel und Erholung)의 추진을 통해 참여라는 체육의 새로운 거시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인프라 확충과 참여의 주체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9년 기준 현재 독일에는 약 88,000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전체인구의 약 1/3가량이 이를 기반으로 스포츠를 접하고 있다(Statista, 2019). 이처럼 스포츠 참여인구의 증대는 스포츠가 보편화된 사회로 진보하는 발판이 되었고, 스포츠클럽이 제공하는 사회 통합, 평등, 화합 등의 다양한 가치를 통해 민주적 시민사회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스포츠의 다변화된 가치체계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송형석 & 이형구, 2009), 이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예: 지도, 운영, 관리) 시스템의 성공적인 존속 및 지속적인 발전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스포츠의 근본적인 철학적 기반을 성립함과 동시에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 스포츠클럽의 유기적인 공조는 참여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스포츠의 보급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주성순, 2016). 공공자원 투입의 정당성은 스포츠의 공공성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 긍정적인 사회적 장점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채워졌다. 하지만 올 초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19의 도래로 체육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 역시 큰 타격을 감내해야 했고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된 생활체육 시스템과 프로스포츠 역시 어려움에 직면했다. 직접적인 참여를 토대로 우수선수 육성과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스포츠의 가치를 추구해왔던 독일의 스포츠 시스템도 상위에 위치한 프로스포츠부터 이를 지지하는 생활체육까지 참여의 제한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스포츠를 대표하는 축구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스포츠 생태계에 야기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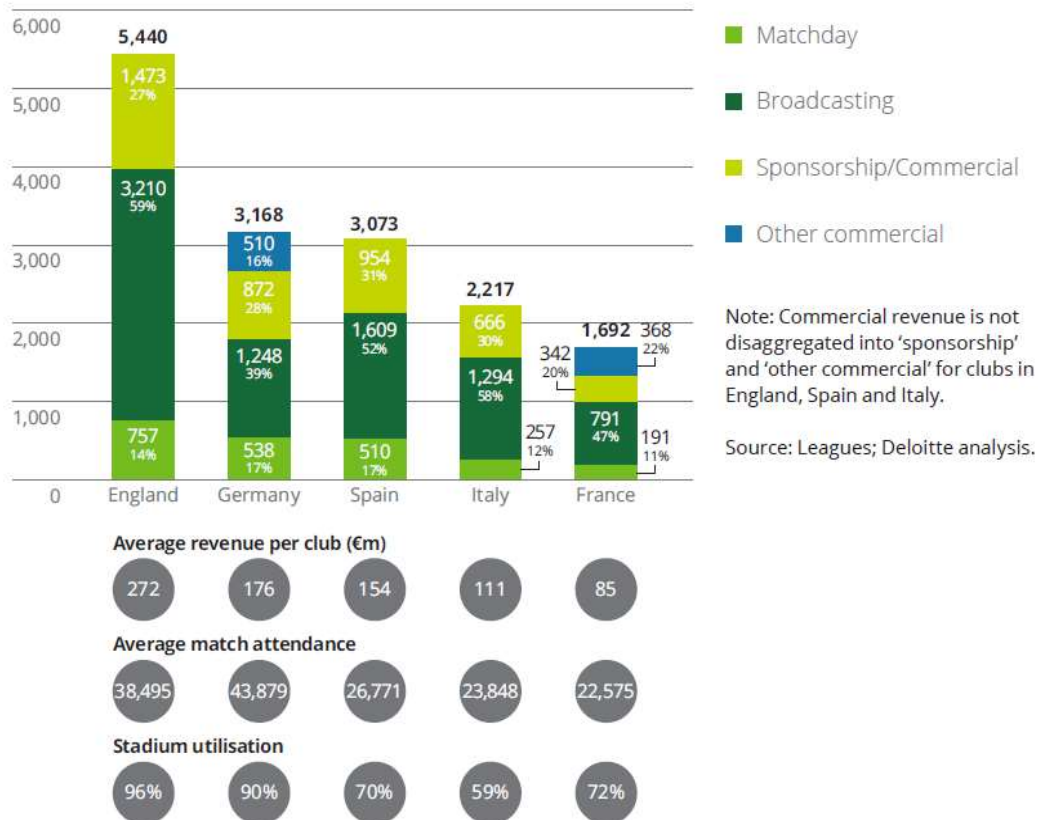
## II. 프로축구의 변화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분데스리가(Bundesliga)를 필두로 독일 축구는 단일리그로 이루어진 상위 3개 리그(1부 & 2부 Bundesliga와 3부 Liga)와 하부리그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총 13부로 구성된 피라미드식 구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상위 3개 리그는 프로리그로, 4부 리그부터는 아마추어리그로 분류되고 있으며, 하부리그로 내려갈수록 구단의 선수단 운영에 소비되는 재정적 규모가 감소하며 운영목적이 경쟁보단 참여의 성격을 더해간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되었던 분데스리가(1, 2부)와 3부 리그(3부 Liga)가 재개되어 2019/20 시즌을 마무리 지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4부 리그 이하 모든 하부리그의 경기는 3월부로 중지되어 공식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그림 1> 무관중으로 치러진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와 FC 쾰른의 경기 (출처: Sport1)

유럽 남부지방에서 확산추세를 보이던 코로나19의 강세는 2월을 기점으로 독일에도 나타났으며, 분데스리가는 2019/20시즌 예정된 34경기 중 25경기만 소화했던 3월 13일 리그의 잠정적 중단을 발표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던 3월 중순과 4월을 지나 확진추세가 감소한 5월 초 무관중 경기로 리그 잔여일정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발표했고, 5월 16일 중단되었던 26라운드가 강력한 방역수칙 이행이란 조건아래 재개되었다. 분데스리가는 유럽 5대 리그(프리미어리그(Premier League)-영국, 라 리가(La liga)-스페인, 세리에A(Serie A)-이탈리아, 리그 앙(Ligue 1)-프랑스) 중 수익구조가 가장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Deloitte, 2019). 딜로이트(Deloitte)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리그들의 수익구조 중 중계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반면, 분데스리가는 39%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경기수입(예: 입장권 및 기타 경기당일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실제로 스페인 라 리가와 함께 분데스리가의 경기수입은 총 수입의 17% 정도를 차지하며, 이 수치는 프리미어리그 (14%), 세리에 A (12%), 그리고 리그 앙 (11%) 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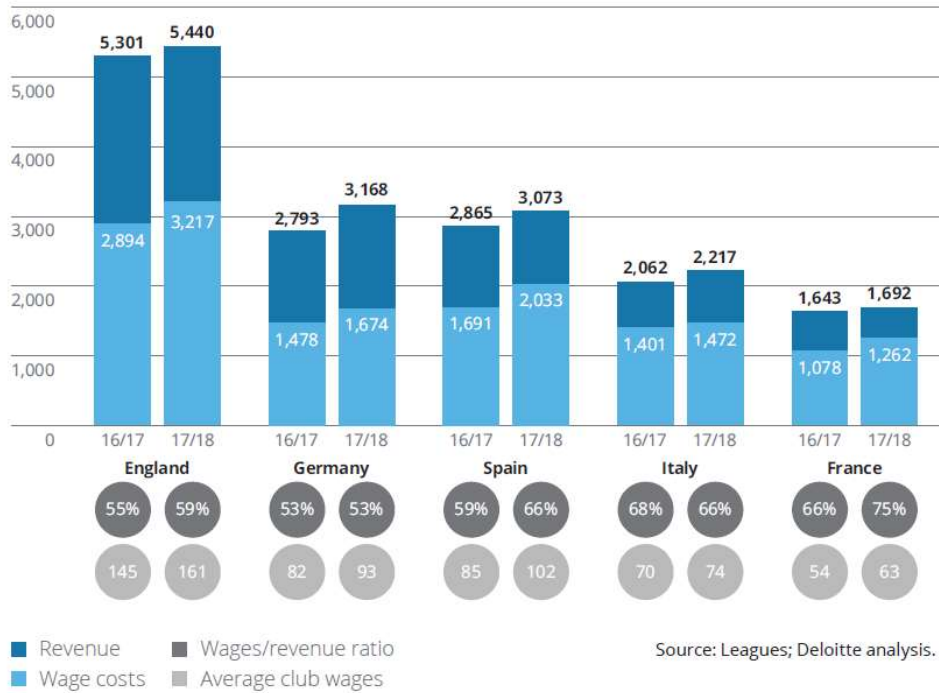


Note: Commercial revenue is not disaggregated into 'sponsorship' and 'other commercial' for clubs in England, Spain and Italy.

Source: Leagues; Deloitte analysis.

<그림 2> 유럽 5대 리그의 2017/18 시즌 수익구조  
(출처: Deloitte Annual Review of Football Finance, 2019)

위와 같은 분데스리가의 균형 잡힌 수익구조는 중계수익의 의존도가 전 세계 프로축구 시장에서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수입원을 바탕으로 리그에 속한 각 구단들의 재정 건전성을 갖추는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례 없는 무관중 경기라는 제한적인 운영을 해야 했던 지난 시즌의 경우 수입원의 한 축을 차지했던 경기수입의 부재로 분데스리가에 속한 구단들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다가오는 2020/21 시즌을 앞둔 분데스리가 구단들이 보수적으로 재정운영에 임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각 구단 지출의 약 53%를 차지하는 선수임금체계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딜로이트, 2019).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수영입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은 구단들로 하여금 이적료를 지불하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대신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FA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의 영입과 좀 더 적극적인 임대정책의 추진 그리고 유소년 선수의 자체육성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다.



<그림 3> 유럽 5대 리그의 2017/18 시즌 총 지출대비 선수단 인건비의 비율  
(출처: Deloitte Annual Review of Football Finance, 2019)

특히, 2020/21시즌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참가하는 18개 구단 중 선수영입에 이적료를 지출한 구단은 현재(8월 31일 기준) 다섯 팀에 불과하며, 영입자금의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Transfermarkt, 2020). 지난 7년간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속했던 팀들의 선수영입 트렌드를 살펴보면, 2013/14 시즌부터 선수영입에 대한 지출과 수익이 대폭 상승했으며, 이는 적극적인 영입과 이적을 통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는 각 구단들의 기본적인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선수영입을 위한 구단 별 지출 및 수익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2019/2020 시즌을 앞두고 열린 여름 이적 시장에서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속한 18팀의 총 이적료 지출액은 6,200만 유로(한화 약 880억 원)와 이적수익 1억6,488만 유로(한화 약 2,340억 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증가추세는 이번 여름 진행되고 있는 이적 시장에서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적료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5% 수준인 1,500만 유로에서 정체를 보이고 이적수익 역시 15%인 2,450만 유로에 머물고 있다.

물론 재정적 기반이 건실한 소수의 상위 팀들은 적극적인 영입으로 전력보강을 꾀하고 있지만 다수의 팀들은 소극적인 이적정책에 이어 선수단의 연봉체계에도 변화를 줘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연봉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봉을 재조정하거나 임대 또는 조건 없는 계약해지를 추진함과 동시에 유소년 육성시스템이 양성한 유망한 팀 내 어린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축구의 국제적 경쟁력이 위축된 2000년대 초반부터 독일축구협회(DFB), 독일축구리그(DFL) 그리고 각



구단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유소년 육성정책을 다수의 구단들은 위기에 직면한 지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추세다. 분데스리가 중위권을 형성하는 TSG 호펜하임, 샬케04, FC 쾰른, 프랑크푸르트, FSV 마인츠 05, 헤르타 BSC 베를린의 경우, 다가오는 시즌을 앞두고 최소 4명 이상의 20세 이하 유소년 선수를 1군 스쿼드에 새로이 등록시켰으며, 다른 구단 역시 유망한 인재들을 자체 승격시키거나 현시점에서 주력선수로 분류되기 부족한 어린선수들은 하부리그 팀으로의 임대를 통해 경기감각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결국, 팀 컬러에 맞는 어린선수들의 자체적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코로나19의 도래로 인해 한 층 더 각인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사료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프로축구의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팬들 역시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경기장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팬들은 무관중 경기 조치로 인해 경기의 직관만이 불가능해진 것 뿐만 아니라 축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개진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Gang, 2020). 분데스리가에 속한 각 구단의 핵심적인 팬 층을 구성하고 있는 정식회원과 팬클럽은 축구라는 문화콘텐츠를 소비함과 동시에 이는 팬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Totten, 2016).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데스리가만의 독특한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50+1룰(50+1 Regel)을 꼽을 수 있다. 해외자본의 유입으로부터 구단에 대한 팬들의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투표권의 50%와 추가적인 하나의 투표권을 개인회원들에게 필수적으로 부여하여 과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구단운영의 대소사를(예: 임원진 선임 등) 총회를 통해 투표로 결정하는 운영체제에서 투자자들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팬들을 구단운영의 중심으로 이끌어 타 유럽의 프로축구리그와 같이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 운영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50+1룰의 제도화는 단순히 팬들이 소비자로서 팀을 응원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넘어 이들이 축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umerato & Giulianotti, 2018). 실제로 투표를 통해 구단운영에 대한 의사를 개진하는 것 외에도 구단과 리그가 시행하는 여러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기도 하고, FC 상 파울리(FC St. Pauli)와 같이 구단과 팬의 정체성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경우 축구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Gang, 2020).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적 성향이 짙은 FC 상 파울리(FC St. Pauli)의 팬들은 파시즘, 동성애혐오증, 성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를 위해 연대하고 이런 가치들을 여러 수단을 통해 표현하고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장을 포함한 축구팬이 이용하는 많은 공간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아이디어를 표출해내는 공론 장으로써의 역할도 수행하며(Guschwan, 2017), 이를 통해 축구는 팬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를 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한다. 프로스포츠를 통해 민주적 가치들을 실현하며 시민사회를 일구어 나간다는 점은 1960년대 초 성립된 스포츠 보급의 근본적인 철학과 맞닿아 있다.



<그림 4> FC St. Pauli 팬 (출처: Penn State University)

하지만 대다수의 축구를 통한 사회참여는 구성원간의 대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의 확산은 무관중 경기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구단과 팬 그리고 팬 간의 소통은 대면에서 여러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전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면의 기회가 없는 소통만을 기반으로 한 참여가 주는 효과는 미지수다. 물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메신저, 블로그 등 여러 온라인상의 소통창구들은 내포된 장점을 토대로 전통적인 소통방식이 지녔던 단점을 보완하며 소통체계의 다변화를 가져왔다(Gregg, Pitts, & Pedersen, 2019). 이 진화된 소통방식은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발전 방식과 참여의 공간적 배경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넓히는 역할을 했다. 이런 온라인에서의 소통이 수반하는 장점을 구단들은 다양한 팬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무관중 경기가 초래하는 공백을 채우고 있지만 비대면 방식의 소통과 참여가 대면을 중심으로 한 참여를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는지와 사회참여 활동이라는 큰 틀에서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Numerato(2015)가 코로나19 이전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온라인에서 생성되는 콘텐츠 및 정보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정보는(팬과 구단을 포함한 프로축구라는 넓은 맥락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며, 전자는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에 오프라인의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온라인이 소통과 참여의 주요 채널이 된 현 시점에서 과연 독일스포츠가 의도했던 근본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Ⅲ. 스포츠클럽에 대한 영향

독일 전역에 자리한 88,000여개의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의 근본으로 여겨진다. 승강제를 기반으로 13개의 리그가 피라미드 구조로 정착한 독일의 축구시스템은 하부리그로 내려갈수록 팀과 지역리



그의 수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1~3부 리그는 단일리그로 구성되어 있지만 4부 리그는 5개, 5부 리그는 14개의 권역리그로 나누어지며, 이와 같은 리그의 세분화는 최하부리그인 13부 리그까지 이어진다. 프로리그가 사라진 경기수입을 메워줄 자구책을 시행하는 중이라면, 축구시스템의 중간을 차지하는 4~6부 리그 구단들은 생존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DW, 2020). 프로리그와는 상이하게 4~6부 리그는 중계권 수입이 없어 수입원의 대부분을 경기수입, 회원권과 지역스폰서십에 의존한다. 하지만 3월 13일부터 잔여 리그 일정이 취소됨으로 인해 경기수입원이 고갈되고 지역스폰서십의 특성상 경기가 노출효과(예: 유니폼, 광고판 등을 통한 홍보)를 보는 중추적인 수단이기에 수익의 한 축을 담당했던 스폰서십의 지속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주요수입원이 고갈되는 가운데 선수단 운영에 따른 고정지출(예: 인건비, 시설운영비)은 조절이 어려운 지출이기에 여러 구단들은 모금활동, 자선행사 등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 루어지역(Ruhr Gebiet)에 위치한 로트-바이스 오버하우젠은 팬들을 대상으로 무관중 경기 티켓을 구단 창립 연도인 1904년을 의미하는 €19.04에 판매했으며, 구매자는 구단 MD상품 구매 시 €10 할인 등 다수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팀을 재정위기에서 구제하기 위한 이 행사는 총 2,300여장을 판매하며 €43,800의 수익을 거두어들였다(RevierSport, 2020). 구단의 위기에 도움이 되기 위한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팬이 중심이 된 독일축구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다. 예로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구단 역사상 두 번째 시즌을 준비 중인 FC 유니온 베를린의 경우, 2004년 경영위기로 인해 3부 리그(Regionalliga-Nord, 현 3. Liga) 참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참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헌혈행사를 블루텐 튀어 유니온(Bluten für Union) 팬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구단의 자금줄을 마련했고, 2008년 여름에는 구장 보수를 위해 2,500여명의 팬들이 직접 보수공사에 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팬들이 중심이 된 운영체계는 팬들의 모금활동 및 재능기부 등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로 이어졌고, 이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다수의 아마추어 팀들이 자금난에 일시적으로나마 대응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 IV. 시사점

코로나19의 도래는 구성원들의 활동 제한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프로스포츠와 생활체육을 지탱하는 스포츠클럽도 예외일 수는 없어 방역수칙을 이행하며 제한적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분데스리가 팀들은 무관중경기가 야기하는 재정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으며, 대다수는 보수적인 선수단 운용과 적극적인 유소년 육성으로 손실을 매우고 있다. 또한, 팬들의 제한적 참여라는 악재 속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여러 획기적인 콘텐츠를 생산, 공유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독일축구의 근간이라 여겨지는 스포츠클럽 역시 코로나19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축구생태계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4~6부 리그에 소속된 팀들은 잔여일정 취소로 인한 재정적 공백을 메워야하는 문제에



<그림 5> 로트-바이스 오버하우젠의 무관중 경기티켓  
(출처: Rot-Weiss Oberhausen Homepage)

직면해 있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가졌지만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라는 핵심적 가치를 유지하며 각자만의 방식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은 아직 엘리트 스포츠라는 정책적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체육계에 많은 고민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모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수익구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리그 역시 침체된 경기와 자치단체의 증가된 복지지출로 인한 여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확정된 2020년 시즌을 지나 2021년 시즌에는 금년과 같은 지원금 규모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구단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수단 운영에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분데스리가 구단들의 보수적인 지출과 유소년시스템을 통한 구단자체육성은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K리그에 참가하는 22개 구단 모두 연령별 팀(U-18, U-15, U-12)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체수급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육성보단 선점(스카우팅)이 우선시 되는 관습, 구단 별 명확한 육성철학의 부재와 소수가 참여하는 엘리트 스포츠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참여라는 철학을 토대로 팬들의 넓은 활동을 이끌어 내는 현상은 축구를 소비자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기보다는 참여가 갖는 확장된 의미와 내재된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어떻게 팬들을 경기장으로 이끌지에 대한 고민을 넘어 어떠한 메시지와 가치를 통해 팬들을 규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의 근본으로 자리한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스포츠가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통합이란 시민구단이 내세우는 가치에 구체성을 더해줄 것이며, 스포츠의 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분명 커다란 위기를 초래했지만 스포츠라는 틀 안에서 그 기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부여하고 있다.

## V. 참고문헌

- 송형석, 이흥구(2009). 독일의 여가정책: 생활체육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현대적 성찰. 한국체육학회지, 48(6), 403-413.
- 주성순(2016). Sport it 생활체육; 독일의 생활체육 사례-잘되는 스포츠클럽은 이유가 있다. 스포츠과학, 134, 58-65.
- Gang, A. (2020). Changing landscape of civic engagement of fans: Understanding the ramifications of Covid-19 and the absence of face-to-face interaction in European football. *Sport and the Pandemic*
- Giulianotti, R. (2005). Sport spectators and the social consequences of commodification.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9, 386-410.
- Gregg, E. A., Pitts, B. G., & Pedersen, P. M. (2019). Historical aspects of the sport business industry. In P. M. Pedersen & L. Thibault (Eds.), *Contemporary sport management* (pp. 51-70). Campaign, IL: Human Kinetics.
- Guschwan, M. (2017). Stadium as public sphere. In M. Guschwan (Ed.), *Sport and citizenship* (pp. 26-42). New York: Taylor & Francis.
- Numerato, D. (2015). Who says “no to modern football?” Italian supporters, reflexivity, and neo-liberalism.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39(2), 120-138.
- Numerato, D., & Giulianotti, R. (2018). Citizen, consumer, citimer: The interplay of market and political identities within contemporary football fan cultures. *Journal of Consumer Culture*, 18(2), 336-355.
- Totten, M. (2016). Football and community empowerment: How FC Sankt Pauli fans organize to influence. *Soccer & Society*, 17, 703-720.
-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15312/umfrage/gesamtmitgliederzahl-deutscher-sportvereine/#:~:text=In%20Deutschland%20gab%20es%20im,aktuell%20im%20Bundesland%20Nordrhein%2DWestfalen>
- <https://sites.psu.edu/unmeshdatta138h/2017/04/07/when-the-punk-and-football-meet/>
- <https://www.reviersport.de/artikel/geisterspiel-tickets-rwo-freut-sich-ueber-grossen-fan-zuspruch/>
- <https://www.sport1.de/fussball/bundesliga/2020/04/bundesliga-leopoldina-praesid>

dent-sieht-geisterspiele-bis-2021

<https://www.transfermarkt.com/?seo=wettbewerbe&plus=1>

<https://www.youtube.com/watch?v=kNWLxOyfELU>

<https://www2.deloitte.com/uk/en/pages/press-releases/articles/european-football-market-worth-28-billion-euros-as-premier-league-clubs-lead-the-way-to-record-revenues.html>

##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 발간목적: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는 스포츠산업 전반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성장에 필요한 대안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김범준(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편집 위원: 전용배(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한진욱(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과 교수)  
김세훈(경향신문 기자)  
유의동(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김상훈(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김민수(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고경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신성연(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보조연구원: 김태중(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초빙연구원)